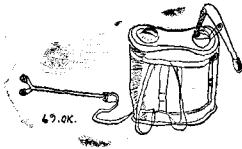


# 곡시뚝병의 예방과 치료



박 근 식  
 <가축위생연구소 제역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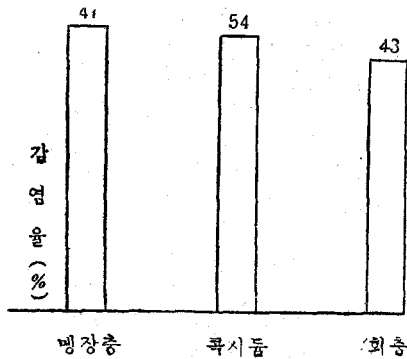
닭 곡시뚝병은 기생성 원충에 의하여 일어나는 전염병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널리 분포되어 있는 닭의 중요한 전염병 중의 하나이다.

1967년도 닭의 병성 감염 총 352건 중 닭 곡시뚝병이 36건으로 10% 이상이 이 병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초생추에 있어서는 17%, 중추에 있어서는 21.7%의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뉴캐슬병 다음으로 무서운 병이며,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큰 병이다. 따라서 이 병은 숙주특이성(宿主特異性)이 매우 현저하여 반드시 닭에만 기생하며 다른 동물에는 기생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의 주요 닭 기생충병의 감염율을 비교하여 보면 그림1과 같이 곡시뚝의 감염율이 47%에 달하고 있다.

<제 1 도> 기생충 감염율(가축위생연구소 : 195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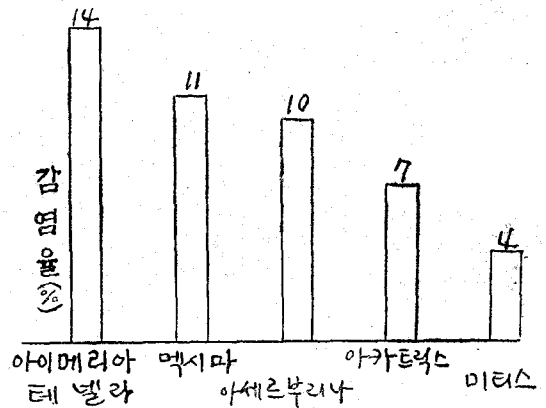
그러나 이 병에 대하여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거기에 적합한 약제가 개발되고 위

생 관리의 개선 등으로 피해를 많이 줄이게 되었다.

## I. 분류와 진단

곡시뚝병은 그 병원체에 따라 9종류로 분류되며, 우리 나라에서도 1959년도에 조사한 성적에 의하면 그 중 다섯 종류가 발견되고 있다. 발생율도 종류에 따라 다르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이메리아 테넬라이며 그 다음이 막시마, 아세르부리나의 순이다(제2도 참조).

<제 2 도> 곡시뚝 감염율(가축위생연구소 :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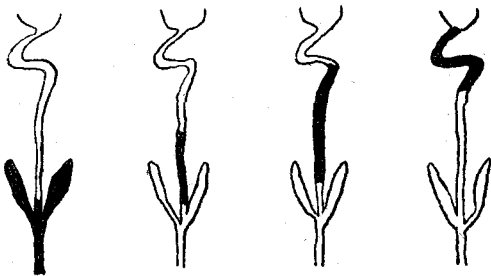
급성출혈성 맹장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이메리아 테넬라의 기생에 의한 것이고, 급성 또는 아 급성출혈성 소장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이메리아 막시마나 아이메리아 아세르부리나의 기생에 의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곡시뚝병을 간추려서 그 증상과 병변(病變)을 보면 표1과 같다.

〈표 1〉 급성, 아급성, 만성 복시독병의 증상과 병변의 비교

구분	병원체	잠복기(일)	비육도	혈변	점혈변	하리	팽장변	주변변	체온	발생기후(부화후)	장 병 변						폐사율(%)
											십이지장	소장상	소장중	소장하	맹장	직장	
급성	테벨라트	3~4	양호	많다	없다	적다	수양지상	맹장	저하	1~1.5	-	-	-	-	+++	+++	46~100
	네카트릭스	5~6	양호	적다	크다	적다	수양지상	소장	저하	2~3	+	+	+++	+	±	-	40~100
아급성	테벨라트	4~5	양호	중	적다	중	수양지상	맹장	저하	1~3	-	-	-	-	+++	+	25~40
	네카트릭스	5~6	양호	중	크다	많다	수양지상	소장	저하	2.5~5.5	-	+	+++	+	-	-	25~40
만성	아세르부리나	5~6	극히 불량	없다	없다	발다양	정상	십이지장	저하	2.5~7	+++	+++	-	-	-	-	10~18
	마시마	5~6	양호	없다	없다	발다양	정상	십이지장	저하	2.5~7	+	+	+++	+	-	-	10~18

〈제 3 도〉 기생부위와 병변의 특징



테벨라 네카트릭스 아세르부리나 마시마

부위에 따라 그 종류를 알 수 있다.

이상의 표1과 그림 3에서와 같은 증상을 종합하여 관찰하면 쉽게 진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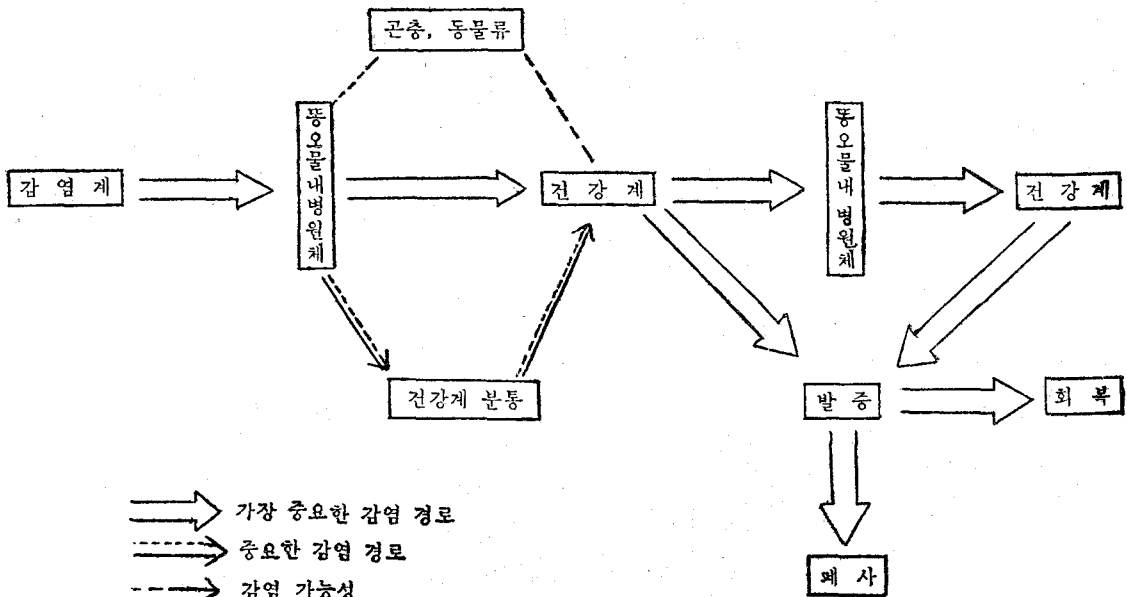
아이메리아 테벨라나 네카트릭스는 중추에 일시적으로 많이 감염되면 급성 증상을 나타낸다.

초생추나 중추가 돌연 붉은 피똥을 배출할 때는 맹장복시독, 점액(粘液)이 섞인 피똥을 배출할 때는 아급성 소장복시독(亞急性小腸)병으로 보아도 거의 틀림이 없다.

## 2. 전염경로

이 병이 걸리게 되는 원인을 보면 거의가 병든 닭의 똥이나 오염된 물질을 먹음으로서 옮겨되며 감염경로는 제4도와 같다.

표1에서와 같이 복시독병을 일으키는 원인체의 종류에 따라 기생하는 부위가 달라 대개는 기생  
〈제 4 도〉 복시독병의 감염 경로



### 3. 오시스트의 성질과 소독

소독을 하려면 오시스트(복시듬의 병원체를 통틀어서)의 성질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 (1) 외계에 의한 저항성

물의 온도에 따라 즉 60°C에서 30분, 70°C에서 15분, 80°C에서 1분동안 처리하였을 때 완전히 사멸한다.

맑은 물에서 14~28°C의 조건을 주면 약 2년동안 살아 남는다.

그리고 그늘이 지고 마른 곳에서는 약 10개월,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약 7개월간 살아 남고 또 온도가 낮은 0°C 이하에서도 약 1~1.5개월간 살아 남는다.

#### (2) 약제에 대한 저항성

이들 오시스트는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하여 탁월한 소독약이 없으나 그 중 효과가 있는 것이 크롤 크레졸로서 상온에서 약 5시간만에 완전히 사멸된다.

그러므로 복시듬병의 예방이나 소독을 위해서는 끓는 물이나 전열에 의한 소독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래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끔 소독약을 이용하므로써 안심하고 있는 분이 많으나, 거의 대부분이 독한 살충제나 소독약 및 항생물질로서는 소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파라치온, 마라치온 등의 유기인제나 DD T, BHC 등의 살충제, 보르도액 라이센 등의 식물병 소독제는 거의 소독 효력이 없으며, 다만 해롭게 화합물 중 디크롤 벤졸이나 크롤 크레졸이 약간 유효하다.

예를 들면 이들 약제도 0.5~1.0%의 용액으로 소독약을 22~24°C에 24시간이나 작용해야 49~99%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들 약제는 온도를 60~70°C로 높여주므로 짧은 시간내에 좋은 소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4. 예 방

가장 좋은 예방법은 이 병을 일으키는 오시스트를 죽여서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완전히 오시스트를 없애기는 어려우므로 약제를 사로나 음료수에 타서 일정한 기간동안 먹여 복시듬병을 가볍게 견도록 하여 예방한다.

이러한 예방을 위하여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 구하기 쉽고 약효가 좋은 것으로 예를 들어 보면 안프로롬을 사료에 섞는 것이 좋다. 섞는 농도는 0.0125~0.004%로서(평균 0.06%) 극히 유효하고 안전한 약제이다.

사용상의 주의는 이 약을 0.0125% 이상 섞어 먹이면 복시듬병에 전혀 걸리지 않아 오히려 예방 효과가 없다.

그 다음은 후라조리돈으로 사료에 섞는 농도는 0.04~0.01%로서 그 효과는 그다지 좋은 편은 못되나, 다른 병까지도 어느 정도 예방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들은 거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 약을 투여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많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이 병에 걸려 그대로 죽는 예가 있다.

그러므로 이 병이 가장 잘 발생되는 이른 봄이나, 일단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썰파제같은 것을 2~3일간 먹여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방제를 먹여야 한다.

영계용 병아리에 대하여 초생추부터 계속 연용하는 것이 좋으나, 채란용의 병아리에서는 초생추보다 중추에서 큰 닭이 되기 전까지에 중점적으로 약을 먹이는 것이 좋다.

### 5. 치 료

이 병에 걸린 닭은 일단 정확한 치료만 한다면 바로 병아리를 구할 수 있다.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제는 썰파제로서 어떠한 썰파화합물이라도 효과가 확실하다.

유효한 설파제는 표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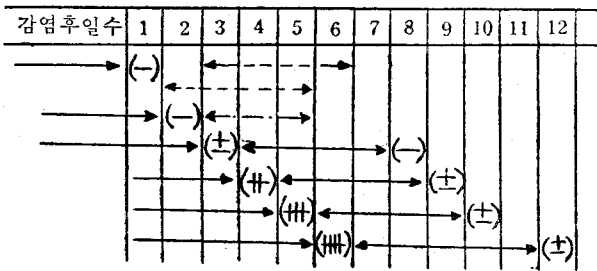
그러나 사용시기를 잘 선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썰파제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간은 병아리가 병에 걸린 후 3~5일의 3일간이며 이 기간동안 약을 계속 연용하여야 한다.

〈표 2〉 유효한 중요 설파제

약 품 명	투 약 량 (사료. 음수혼합%)	투 약 기 간
설 파 메 라 정	0.1 ~0.2	1일 3회 이상 12회 나누어 투약, 3~5일간
설 파 메 사 정	0.1 ~0.2	"
설 파 이 소 메 진	0.1 ~0.2	"
설 파 이 소 메 술	0.1 ~0.2	"
설 파 퀴 녹 사 린	0.03~0.05	"
설 파 디 메 독 신	0.1 ~0.2	"
설 파 디 메 칠 피 리 미 딤	0.1 ~0.2	"

〈제 5 도〉 설파제의 투약시기와 기간 및 효력



- (-) : 무효
- (+) : 약간 유효
- (++) : 유효
- (+++): 극히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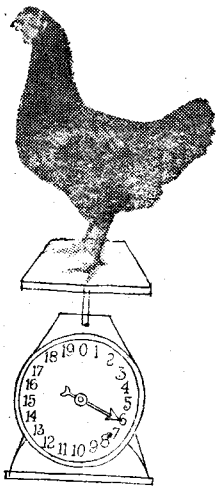
- (####) : 가장 유효
- : 투약기간
- : 최단유효 투약기간
- : 최유효 투약기간

설파제의 투약기간과 약효의 관계는 제5도와 같다.

특히 어떠한 종류의 설파제라도 1일 3회 이상 나누어 먹이고 최저 3일간은 연용하여야 한다.

보통 3~5일간 연용하나 7일 이상 연용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약은 일광에 비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에 타서 먹일 경우는 급수기의 밑바닥에 오물이 없도록 하고 먹일 약은 그때그때 타서 먹여야 한다.



B 390

# 세계의경제계



B 300

B 390



B 300

美國마부곡原種農場韓國特約孵化場  
●全群自家種鷄責任生産

## 鳳鳴孵化場

忠南天安市鳳鳴洞60-1 TEL. 792